

정부, 핵심광물 공급망 넓힌다

국민성장펀드 활용 투자 확대

금융위·산업부, 기업 간담회 개최
‘히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후속조치
정·제련 등 전주기 걸쳐 금융 지원

국민성장펀드가 지원하는 12대 첨단전략산업 가운데 하나인 핵심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 지원이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부터 정·제련, 소재 가공, 재자원화까지 전주기에 걸친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해외개발·가공·재자원화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발표한 ‘히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핵심광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국민성

장펀드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방산, 로봇 등 12대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는 정책펀드로, 핵심광물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해외자원 조사와 특별용자, 재자원화 설비 투자, 원료 비축 지원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히토류 영구자석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위는 높은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 확보와 정·제련, 소재 가공,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등 핵심광물 전주기를 대상으로 투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안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민성장펀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해외자원 개발과 핵심광물 가공, 재자원화 프로

트 투자 계획을 공유하며 글로벌 경쟁 심화와 설비·기술 확보, 원료 수급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 특성상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정부가 함께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와 전기차,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해외자원 개발부터 정·제련, 가공, 재자원화까지 사업화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영재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도 “핵심광물은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자산”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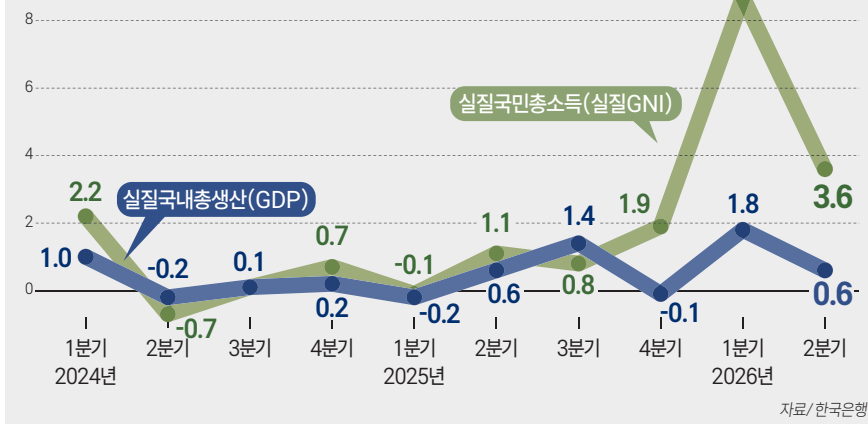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실질 GDP·GNI 성장률 추이

단위: %, 전분기대비



자료/한국은행

2분기 한국경제 0.6% 성장

한국은행 2분기 국내 총생산 발표
반도체 수출 중심 성장세 유지

우리 경제가 올해 2분기 전 분기보다 0.6% 성장해 두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1분기 1.8%보다 성장 속도는 낮아졌지만 반도체 수출과 민간소비·서비스업이 건설 부진을 매웠다.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은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동기보다 15.6% 뛰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보다 0.6%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3.7%로 1분기 3.8%보다 0.1%포인트(p)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반등한 데 이어 성장세는 유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됐다.

성장 동력은 내수와 수출로 양분됐다. 내수와 순수출은 2분기 성장률에 각각 0.3%p씩 기여했다. 주체별로는 민간 부문이 성장률을 1.0%p 끌어올린 반면 정부 부문은 0.3%p 낮췄다. 정부소비가 증가했지만 정부 부문의 투자 등이 감소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는 가전제품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 전 분기보다 0.4% 증가했다. 증가율은 1분기 0.6%보다 낮아졌지만 네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2% 늘어 1분기 마이너스(-) 0.4%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1.4% 증가했다. 1분기 5.9%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다. 자동차와 기계·장비 수입은 0.8% 늘었다. 수출 증가 폭이 수입보다 커지면서 순수출은 성장률을 0.3%p 높였다.

투자는 부문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토목건설이 줄면서 건설투자는 0.2% 감소해 1분기 1.4% 증가에서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이 늘면서 설비투자는 0.2% 증가했지만 1분기 6.6%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 반면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3.3% 늘어 2012년 1분기 5.4%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생산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과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1.1% 성장했다.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도는 0.6%p로 2분기 전체 성장률과 같았다. 세 부적으로 정보통신업이 3.8%, 운수업이 2.0%, 금융·보험업이 1.8% 성장했다.

제조업도 컴퓨터·전자·광학기기과 기계·장비 호조에 1.2%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6.5% 성장해 전체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 반면 토목건설 부진으로 건설업은 전 분기보다 1.9% 감소했고, 제철업과 어업이 줄면서 농림어업도 7.1% 감소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 역시 1.3% 줄었다.

실질 GDI는 전 분기보다 3.6% 증가해 GDP 성장률을 3.0%p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5.6%로 1988년 1분기 16.4% 이후 가장 높았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청년층 경제활동·고용률, 2004년 이후 최대폭 하락

데이터처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용률 43.8%… 전년비 2.4%p ↓

국내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이 2000년대 중반 이래 22년 사이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15~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2%로 전년동월 대비 2.3%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51.5%에서 2023년 50.5%, 2024년 50.3%까지 내려온 바 있다. 이어 작년에는 49.5%, 올해 47.2% 등 2년째 50% 선을 하회했다. 참가율 절대치 역시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47.0%) 이후 가장 낮다.

청년층 인구는 782만2000명으로 15만2000명 감소했는데, 경제활동인구는 369만4000명으로 25만 명이나 줄었다. 취업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에도 나서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가 412만8000명으로 9만800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청년 취업자 수는 34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5000명 감소했다. 매년 5



김라현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월을 비교하는 부가조사 기준으로 2004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고용률도 43.8%로 1년 전보다 2.4%p 하락했다. 하락 폭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2004년 이후 가장 컸다. 고용률은 2022년 47.8%를 기록한 뒤 4년 연속 내려, 2020년(42.2%) 이후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자 수는 26만6000명으로 5000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7.2%로 0.6%p 상승했다. 20대 초반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20~2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44.9%로 4.8%p나 급락했고 고용률도 41.6%로 4.2%p 떨어졌다. 25~29세 경제활동참가

율은 76.9%로 0.7%p, 고용률은 71.4%로 1.3%p 각각 하락했다.

국가데이터처는 대규모 공개채용이 줄어든 데다, 경력직 수시채용 중심으로 채용문화가 바뀌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전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등 외부 요인도 청년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라현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증가 등의 취업문화 변화가 청년층에 상당히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난 5월 지표에는 중동전쟁 영향 등 여러 외생 변수의 영향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대학 등의 최종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도 부진했다. 졸업자 400만3000명 가운데 취업자는 276만 명으로 20만2000명 감소한 반면, 미취업자는 124만3000명으로 3만1000명 증가했다.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은 68.9%로 2.1%p 줄었다.

졸업 후 한 번이라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 비중은 84.8%로 전년동월 대비 1.6%p 하락했다. 인원이 아닌 비율을 기준으로 2004년 조사 이후 가장 낮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한화오션, 원청 사용자성 불복… 노란봉투법 1호 행정 소송

법정·현장 노사 갈등 고조

한화오션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다루는 첫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적 공방이 본격화한 가운데 하청 노조도 오는 8월 공동투쟁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법정과 현장으로 번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도급업체 ‘월리브’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

정에 불복해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난달 15일 한화오션에 월리브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법리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구내식당 조리·배식 등 일반 도급에서는 원청의 업무상 요구만으로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실질적 지배력을 업무 형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권태혁 숲노무법인 노무사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얼마나 결정·통제했는지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야 한다”며 “계약 구조와 업무 지시, 인력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metro

재정부, ‘글로벌 핵심투자자 협의체’ 예고

국내 기관·해외 운용사 등 참여

국내 유관기관과 해외 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핵심투자자 협의체’가 꾸려진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22일 싱가포르에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IR)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재경부가 주관하게 될 이 협의체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에타결체원 등이 참여한다. 여기에 해외 주요 자산운용사, 국제투자은행(IB) 등의 참여도 예정되어 있다.

정부가 해외 투자자에게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사항을 직접 설명하는 구조다. 이 협의체는 투자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 사항을 검토·해소하는 상시 소통·환류 채널로 운영된다.

문 관리관은 블랙록·아몬디슈로더 등

주요 자산운용사와 국부펀드, 골드만삭스 등 국제 IB가 참석한 설명회에서 한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 흐름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밝힌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 등에 관심을 보였다. 또 반도체 호황의 지속 가능성,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 계획, 원화 국제화 계획 등을 물어 왔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문 관리관은 런던 소재 해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 및 싱가포르 글로벌금융시장협회 외환 부문(GFXD)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외환 분야 설명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RFI 제도개선 등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혁 추진 현황을 비롯해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대해 소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metro